

흥



멸치



갈치

멸치·갈치 등 난류성 어획량 143% 늘어

따뜻해진 바다 희비

예년보다 0.1~0.5°C 상승...어획량 큰 변화

여수지역 2분기 어항 분석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로 어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 2·4분기 어업생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난류성 어종인 멸치와 갈치 어획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김, 미역 등의 해조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역 대표 어종인 멸치와 갈치 어획량은 4천89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나 증가했으나 김과 미역은 1천305t으로 8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획량 증감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온변화가 바닷물 온도 상승에 영향을 끼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연안수온이 4월이후 0.1~0.5°C 상승하면서 난대성 어종인 멸치와 갈치 어군이 예년보다 빨리 형성돼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김·미역 등 해조류는 수확이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도 “해수온 상승 등 멸치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해양환경 조건이 갖춰지면서 어획고가 급증했고, 관련 어종인 갈치 등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양청이 집계한 2·4분기 어업생산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해역 어업생산량은 4만8천141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으나, 판매고는 지난해 875억여원에서 965억여원으로 10.3% 증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김·미역 등 해조류 생산량 84% 줄어



김



미역

悲

물길 막는 수초 제거 8배 빨라진다

농촌공사 전남본부 수초 제거기 개발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가 수초제거기를 개발했다. 농촌공사 전남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종류의 수초제거기 개발에 성공했다.

전남본부 산하 강진완도지사가 2005년 5월 로터리식 수초제거기 제작에 성공한데 이어 전남본부가 지난해 8월 파쇄압축형과 올해 4월 중대형배수로 전용형을 개발했고 영암지사도 지난 5월 수초압착롤리식을 개발했다.

로터리식은 배수로 바닥의 수초나 갈대 제거용으로, 파쇄압축형은 수초를 제거할 뿐 아니라 파쇄·압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처리가 가능하다.

또 중대형배수로 전용용 중·대형 배수로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용량을 키웠으며 수초압착롤리식은 제거된 수초를 롤러로 압착해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별도로 본체를 제작하지 않고 농업용 기계인 관리기나 콤팩트, 소형 굴착기 등에 연결하는 형태여서 제작도 용이하다.



이들 수초제거기는 인력대비 최고 8배의 작업능률과 74~35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본부는 종합적인 성능 검증과 제품화 등을 위해 29일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간척지에서 농림부와 전남도, 영암군 등의 공무원과 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시연회를 갖는다. 수초는 배수로나 저수지 등에서 자리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나 그동안 제거가 어려웠음을 겪어 왔다. /송기동기자 song@

일손도 돕고 농산물 사주고

광산구 도시洞-농촌洞 자매결연 활성화

광산지역 농촌동과 도시동이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신가·첨단동 등 11개 도시동과 하남·삼도동 등 8개 농촌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대1 또는 1대2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광산구의 도·농 복합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일손 돕기봉사

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계절별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신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교환 등을 통해 농촌동과 도시동 간 교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8일 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첨단 2동 주민들은 방울토마토 선별장과 무형 문화재인 고현 조기장씨가 운영하는 평동도요지를 방문했다. 또 함께 고추·차돌복숭아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항소와 백로...한가로운 동거

함평군 해보면 해보목장에서 항소와 백로가 한데 어울려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해보목장에는 9년전부터 매년 늦은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백로 떼가 날아들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도양읍에 300만㎡ 조선타운 조성

고흥군 5,230억 투자...2008년 5월 공사 시작

고흥군이 조선타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흥군은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도양읍 일대 300만㎡ 부지에 총 사업비 5천23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조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 조선타운은 1조 2천억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4천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기대된다. 다음 달 금융사와 고흥군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며 오는 2008년 5월 공사에 착수한다. 박병중 군수는 최근 조선타운 조성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발굴토록 지시했다. 박 군수는 “조선소 건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조선타운 조성은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민으로부터 건실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서남해안 8개 지자체가 지역의 운명을 걸고 조선소 유치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인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어르신 편의시설 확충 위한 나눔 행사

여수 남산요양원-GS칼텍스 한마음 봉사대

31~1월 여천 용기공원서

여수 남산요양원(원장 전진희)과 GS칼텍스 한마음 봉사대(대장 이득섭)가 함께 하는 ‘어르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나눔 행사’가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여천 선소 앞 용기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일일 찾집과 특산물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무료 노인요양 기관인 남산요양원 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GS칼텍스 한마음 봉사대는 10여년전 부터 남산 요양원에서 노

후를 보내는 50여명의 원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GS칼텍스 여수공장 내 직원 상호간의 인화 단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득섭 한마음 봉사대장은 “지역복지와 기업복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남도대학에 ‘국제교육센터’ 설립

KT·남도대학 공동 운영...유학·어학 교육서비스 제공

도립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 유학·어학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학교기업 ‘남도국제교육센터’가 들어선다. KT와 남도대학이 함께 설립·운영을 주관하는 ‘남도국제교육센터’는 외국 현지의 우수교육기관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유학 사전준비와 원어민강사 교육과정 등 유학과 관련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남도대학은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인적·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한편 KT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45억원을 투자하고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유학과

어학교육 관리서비스 등 국제교육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2012년에는 이곳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제교육 특구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립 남도대학 장흥캠퍼스는 학생수 급감으로 한때 폐교까지 거론됐으나 담양대학교와 통합된 뒤 특산자원산업화센터, 국제교육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장흥=김홍기기자 kykim@

보성 녹차 품질 더 꼼꼼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약 잔류농약검사 등 실시키로

보성 녹차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성군은 지리적 표시 전국 제1호인 ‘보성녹차’ 신뢰도를 회복하고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잎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82종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시중유통 녹차 제품에 대한 검사도 더욱 강화된다. 보성군은 오는 2009년까지 친환경 차 재배 면적을 전체 녹차 재배면적 683ha의 75%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보성군은 매년 친환경 차 재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차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 /보성=인구일기자 giahn@



인도 없는 이상한 도로

나주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의 나주 터미널 입구에서 나주교회 구간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병행 앞 도로에는 아예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퇴직 앞둔 공무원 해외연수 혈세 낭비”

광양시 올해만 1억800만원 지원...광양 YMCA 폐지 주장

광양시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부부에게 예산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광양시 공무원 부부 36명은 최근 ‘해외 연수’ 명목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5개국을 10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광양시는 1인당 300만 원씩 1억 80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했다. 이에 대해 광양 YMCA는 보도자료

를 내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배우자를 동반해 세금으로 관광 위주의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광양 YMCA는 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광양시 공무원 6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며 “해외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 위주로 짜여 있으며, 연수 보고서도 부실해 해외 연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양 YMCA는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및 결과 공개 ▲공직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 ▲귀국보고서의 내실화 및 정보 공유 등을 광양시에 제안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는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지적한 내용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홍기기자 chkim@



구례우체국 ‘고객의 날’ 다양한 이벤트

구례우체국은 지난 27일 고객의 날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다. 구례우체국은 이날 모든 고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100번째 이용 고객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사진] 이영봉 국장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우체국,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체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순천매산고 기숙사 기증 부영 10억여원 들여 건립

(주)부영이 순천매산고에 기숙 생활관인 ‘우정학사’를 기증한다. 순천매산고는 28일 대강당에서 이종근 부영회장, 최병민 교장과 교직원, 동문, 학부모,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학사’ 기공식을 가졌다.

10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1천㎡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우정학사는 기숙사 24실과 독서실을 비롯해 샤워실, 탈의실 등 학습·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최병민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숙원사업인 생활관 기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위상을 다져나갈 기쁨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